



“그린엔푸드, 나눔경영으로 이웃사랑 실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현장속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다.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들이 모여 큰 희망을 주는 곳'이 있어 찾아간 곳은 '2005년 참된 사랑의 모임'. 이 곳에서 지난 3년간 묵묵히 사랑을 실천해 온 업체를 만날 수 있었다. 바로 (주)그린엔푸드(대표이사 김병갑)이다.

(주)그린엔푸드의 프랜차이즈 '에버스카이'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생신상을 차려드립니다.



“작은 사랑들이 모여 큰 희망을!”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그린엔푸드의 식구들은 지난해 어느 누구보다 따스~한 연말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31일 전 임직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2005 참된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한 것.

이 행사는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김병갑 사장의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부터 인보가정 100여세대에 생신상 차려드리기, 봉사활동 등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그린엔푸드 주최, 참된 사랑의 모임·인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주관, (주)마니커, (주)동우, (주)치플스 후원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사랑의 집만들기, 인보가정 돕기, 사랑의 열매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그린엔푸드 김병갑 대표이사를 비롯 임직원 100여명은 경기도 용인시 사회복지과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내 독거노인, 불우장애인, 인보가정 등 총 15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고추장 7kg, 설탕 3kg, 식용유 3.6ℓ 등 생필품과 닭고기 가공품을 각각 전달했다. 그리고, 집주변 및 집안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런 일에 대표이사라고 빠질 수는 없는 법. 김병갑 사장도 가족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직접 청소, 식사수발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한편 12월 27일날에는 (주)그린엔푸드 임직원 일동 및 ‘참된 사랑의 모임 회원’ 등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여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300만원을 ‘사랑의 열매본부’에 전달했다.

사랑의 열매본부에 모금된 성금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의식주 기초생활 지원과 함께, 다양한 민간복지를 위해 쓰여지게 된다.

김병갑 사장은 “성공적인 기업경영은 믿음을 주는 경영, 신뢰를 쌓아가는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더불어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나눔 경영이 더해짐으로써 비로소 성공적인 기업경영의 기초가 된다”며 “(주)그린엔푸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나눔 경영을 실천해 기업 간의 솔선수범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그린엔푸드는 앞으로 불우장애인 리브하우스 리폼 행사를 펼쳐 기부나 단발성 도움보다는 임직원이 직접 시간과 노동력을 할애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문의 : 인보가정봉사원파견센터
(Tel. 031-339-9146)